

지역·시민·행정 삼박자... 일자리 새 직군 개척하다

광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병원아동보호사 문의 잇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복지 결합한 일자리 창출 모델로

“처음에는 아이들 건강 때문에 배웠는데 이제 직업이 됐다. 어린이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도 있고 소득으로 가계에도 보탬이 돼 좋다.”

김경아(가명)씨는 음악줄넘기 강사다. 광산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음악줄넘기 과정’ 심화반까지 수료한 뒤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1개 학교에서 강사로 나서 한 달 11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학생들과 학교측에서 인정받게 되면 여러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광산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취미 위주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변경된다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의지가 작용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3년부터 ▲그림책 교육 ▲음악줄넘기 ▲창의사고력 ▲전래놀이 지도사 8

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음악줄넘기 등 6개 과정은 기본·심화반으로 나뉘고 기본반 수료생(1391명) 중 45%인 632명이 심화반까지 이수했고 이들의 40% 가량이 250명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측도 방과 후 과목,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고민을 덜었다.

광산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주민, 자치단체가 소통하면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병원아동보호사도 비슷하다. 전문 교육 수료자가 병원에 입원중인 아이들을 돌보는 데, 맞벌이 부부의 간병 걱정을 덜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여대와 병원아동보호사 67명을 양성했고 이들 중 36명이 현장에

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한 달 평균 수익은 50만 원 정도다. 병원 입원 중 병원아동보호사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만 465명(5334시간)에 이른다. 시간당 이용 요금은 1만 2000원이지만 광산구가 소득에 따라 요금의 50~90%를 지원, 환자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병원아동보호사에 대한 문의와 긍정적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의 경남도가 병원아동보호사 자료를 요청했고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4월 사업 도입을 발표할 바 있다.

광산구의 병원아동보호사제도는 또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의 지역사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명숙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은 “병원아동보호사는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경험이 강점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과 복지 결합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광산구가 지역자원, 시민과 창출한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양성한 줄넘기지도사는 광주·전남 초등학교에서 인기다. 줄넘기지도사의 수업 광경.

민형배 광산구청장 잇단 특강 ‘리브콜’ 받는 까닭은

자치·민주주의 수준 주목 해외단체 행사 참석 요청도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곳곳에서 특강 ‘리브콜’을 받고 있다. 구정 성과 ‘노하우’를 공유하려는 요청이 국내외에서 이어지는 것.

민 구청장이 지난 1월부터 20일 현재까지 특강, 토론회, 발제 등에 나선 횟수는 모두 27차례. 민 구청장의 전문인 자치·분권, 복지, 사회적경제, 인권, 빅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등에 요청이 집중됐다.

사회적경제의 경우 국제회의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 청장은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서울시와 개최한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에도 참석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인사와 활동가 600여 명이 참가한 행사다. 민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를 육성할 공공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또 지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8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초청받아 가이 스탠딩 런던대 교수, 샌드라 폴라스키 전 ILO 부총재 등과 새로운 분배 방식을 주제로 토론했다.

민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분배 정책으로 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특강, 토론회 참석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국제기관의 요청이 두드러져 눈에 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한 민 구청장.(오른쪽)

시했다.

사회적경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세계적 지성’과 대담한 사례도 있다. 그는 지난 10월 마거릿 맨틀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장, 캐리 폴라니 레비 캐나다 맥길대 교수와도 대담한 바 있다.

민 구청장의 활발한 국제무대 진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촛불항쟁이다. 촛불 시민의 자치력과 민주주의 수준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때문. 사회적경제 핵심 원리가 자치와 민주주의라 한국의 잠재력이 급급한 해외인사,기관들

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민 구청장을 초청한다는 것.

둘째는 광산구가 거둔 사회적경제 성과다.

광산구의 ‘클린광산 협동조합’은 방송에서 여러차례 소개됐고 민 구청장도 광산구의 사회적경제 성과를 소개하고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특강, 토론회 같은 민 구청장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자치,분권이다. 평소 ‘자치가 진보, 참여가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동장 주민추천제’, ‘주

민회의’ 등을 성공시킨 민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시대’와 걸맞기 때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재)희망제작소 등 시민단체에 이어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17일) 등 당의 특강 요청이 줄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단체장으로서 거둔 구체적인 성과와 전남대 연구교수에서 쌓은 이론이 결합돼 그를 ‘인기 강사’로 만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기자 노트

지방정부 ‘일자리 블루오션’ 주목해야

‘블루오션’(blue ocean)은 시도된 적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의미한다. 블루오션은 대부분 자본이 창조한다. 이 경우 목적은 최고의 수익, 그 속에 사람의 가치는 없다. 광주 광산구는 블루오션의 목적을 자본에서 사람으로 바꿨다.

무엇보다 지역,시민,행정



최승렬
광산주재 기자

의 긴밀한 협력이 돋보인다. 대표 사례가 병원아동보호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일군 지도사들이다.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하다. 첫째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군이라는 것이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좋은 효과를 거둔다는 게 둘째다.

성공 비결 역시 연대와 사람이라는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연대는 지역의 협업이다. 병원아동보호사가 이런 경우다. 광주여대와 광주수원미래아동병원 그리고 광산구가 협업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연대 주체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요소를 가미해 환어의 심신을 돌볼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한 것.

광산구 평생학습 과정은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방과후지도사, 전래놀이 지도사로 거듭난 이들은

교육현장의 고민인 콘텐츠 부족을 해결하며 아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음악줄넘기 지도사의 경우 별도의 협회를 구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재능기부에도 나서면서 ‘평생학습’의 공익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앙,지방정부에 ‘힌트’를 주고 있다.

그 힌트는 다음 아닌 시민의 참여와 자치에 있다. 현장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마감을 끌어주면 시민의 실천과 상상력이 발휘된다. 광산구는 이것을 잘해왔다. 시민들의 자치력을 믿고 적정 수준의 마중물을 부어준 광산구 행정의 ‘스마트’함이 돋보인다.

결국 일자리 사업은 지역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로 풀어가야 지속가능한 순환구조를 만든다.

이제 곧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분권 시대가 온다. 일자리도 대기업 중심 관성에서 벗어나 시민자치로 풀어나가는 ‘신사고’가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 이제 ‘큰 거 한 방’은 없다.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의료광고심의의제 제 17073-중-83321호

자켓을 입고 벗기가 불편한가요?

“팔이 뒤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중점 치료
비수술적 주사 치료 및 관절내시경 시술은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위치!